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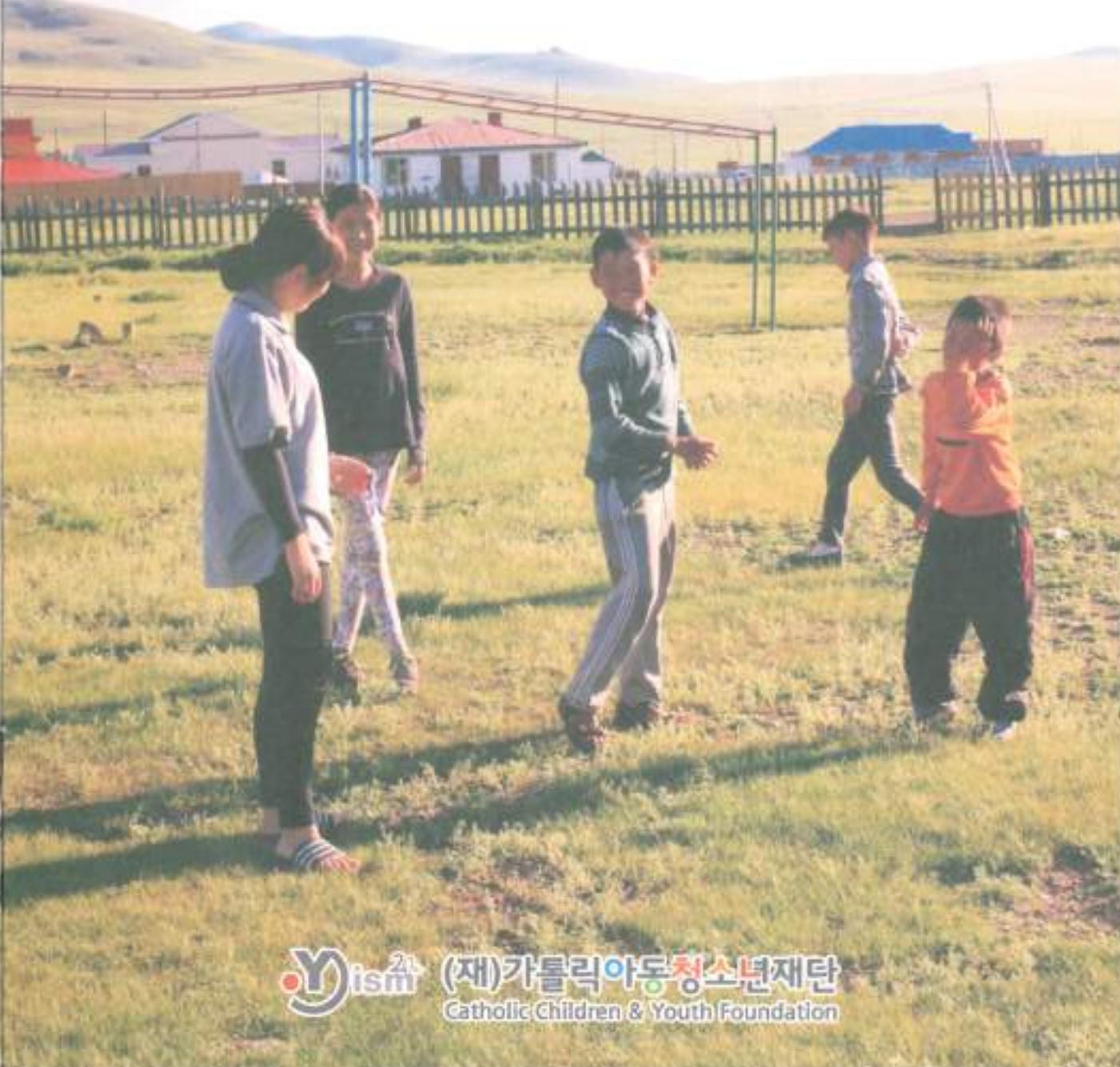
\*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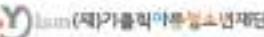
같은 청소년을 위한 우편물의 좋은 노력

맑은 청소년 주의

(자)기쁨릭아동청소년재단 소식지 Vol.8호  
[2015년 출판기]



후원회원님들의 사랑과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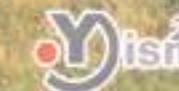
발행일 | 2015년 12월 1일

발행처 | (주)카풀리아동청소년재단

대표전화 | 032) 74

이메일 | youth@yisam.or.kr

주 소 |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7, 5층 (구월동)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Catholic Children & Youth Foundation



## CONTENTS

(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소식지 V4호  
[2015년 하반기]



03 인사말

04 재단소식

08 산하시설 소식

10 청소년 정책 이슈  
\_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

11 후원금 사용현황  
\_여러분의 후원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12 회원안내  
\_후원참여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4 후원회원 명단

### MISSION(미션)

가톨릭정신에 입각한 창조적 경영과 효과적인 휴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존엄성 실현에 기여한다.

### VISION(비전)

- 위기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운영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 우수한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사업 인프라 확대
- 교육을 통한 직원역량강화 및 산하시설 운영수준의 상향평준화

### 주요사업

- 보호, 상담, 활동 등의 아동·청소년 복지 및 육성사업
- 아동청소년 시설 설치·운영
- 해외 자선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 아동·청소년 구호 및 장학사업
- 아동·청소년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 아동·청소년지도자 양성

우리 (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은 “가톨릭정신과 아동·청소년관련법의 임법취지와 제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육성, 복지, 자선사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내년이면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존엄성 실현이란 아동·청소년의 존재 자체가 귀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성장시킬 능력이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재단은 “가톨릭정신에 입각한 창조적 경영과 효과적인 휴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존엄성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Mission)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뭘을 들려주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의 모든 임직원들은 ‘진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가장 소중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실천하려 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진행해 나갈 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합당한 것인지 묻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 바쁜 길을 가는지를 돌아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해 주는 재단의 슬로건이 “맑은청소년주의(Yism)”입니다. 그 뜻을 ‘맑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들의 맑은 노력’으로 이해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이 그들의 마음을 잘 지키고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봅는 우리들의 모든 의지와 노력을도 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을 향한 진정성있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투명하게 일하려 합니다. “딴생각을 하거나 끔수를 부리지 않겠습니다. 바르게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2015. 12.

(제)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사무총장

이재현  
안티모 신부

아동·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뭘을 들려주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Yism





### 전체직원 '돈보스코 예방교육' 실시

우리 재단에서는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체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돈보스코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목)에 시작한 교육은 6월 18일(목), 9월 17일(목), 9월 24일(목)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청소년의 벗이자 아버지 스승인 돈보스코 성인의 예방교육 철학과 활동에 대한 고독이 살레시오수녀회의 류채덕(교사), 장성예(크리스티니) 수녀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돈보스코 예방교육을 통하여 교육자의 자질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대학생 서포터즈 연합워크숍 진행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 동안 충구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재단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대학생서포터즈 19명을 대상으로 연합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생 서포터즈가 직접 기획·준비하였으며,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및 자치회의 등을 통하여 재단 자치조직 간의 친목도모와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차 신입직원교육 실시

우리 재단에서는 새로 입사한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이어 10월 6일(화)에, 재단 맘터너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3월 이후 신규 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재단의 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직원 간 상호교류의 시간을 통해 재단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직장예절교육을 통하여 직장생활 내 기본 메티켓을 배움으로써 신입사원이 가져야 할 물바른 인성과 태도를 함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2015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대축제 체험부스 운영

10월 17일(토), 인천 중앙공원(구월동)에서 개최된 '2015 청소년문화대축제'에 참여하여 청소년 및 지역주민 200여명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15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대축제'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하며, 재단에서는 '우드바닐을 이용한 나만의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재단 소속 대학생 서포터즈가 직접 기획·준비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직접 새기고 소장함으로써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청소년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2015 대학생공모전 개최

재단에서는 청소년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참신한 청소년사업 아이디어를 뽑낼 수 있는 '2015 제1회 대학생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한 서류접수기간에 총 53개의 팀이 응시하였으며, 10월 8일(목) 서류심사와 11월 7일(토) 면접심사를 거쳐 대상 1팀(상장 및 상금 300만원/▲보현-박시희, 권문아, 김보영, 박희래, 풍서정), 우수상 2팀(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민소발자국을 따라서-김윤경, 백효경, ▲비긴어게인-송주온, 김세원, 이제민, 이진마), 임선 2팀(상장 및 상금 50만원/▲화기애애-김애은, 이제현, 이소연, 김유진, ▲웃신호-황은정, 김진경, 서미란, 이수민) 등 총 5개의 팀을 선별 하였습니다.

재단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공모전 개최를 통하여 예비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사업의 다양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개선방향 설문조사 실시

재단직영 연구기관인 '청소년연구소 맘옴'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 지원 개선방향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려 상반기 청소년 유관 기관 실무자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 및 기관 지원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0월 중순부터 한 달간 수도권 지역의 청소년쉼터, 자립지원 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본 결과물을 토대로 자립과정의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요소를 탐색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사회에 적응,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과 정책제안 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 재단 후원회원, 청소년을 위한 차량기증

우리 재단의 후원회원이신 이현숙(세실리아) 자매님과 이중석(나클라오) 형제님으로부터 차량을 기부 받아 지난 8월 13일(토) 인천 디동성당에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나눔으로 얻는 것이 더 많다."는 말씀 기억하며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차량은 위기청소년과 취업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교육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안한광역사청소년자립작업장 'oak'에서 청소년을 위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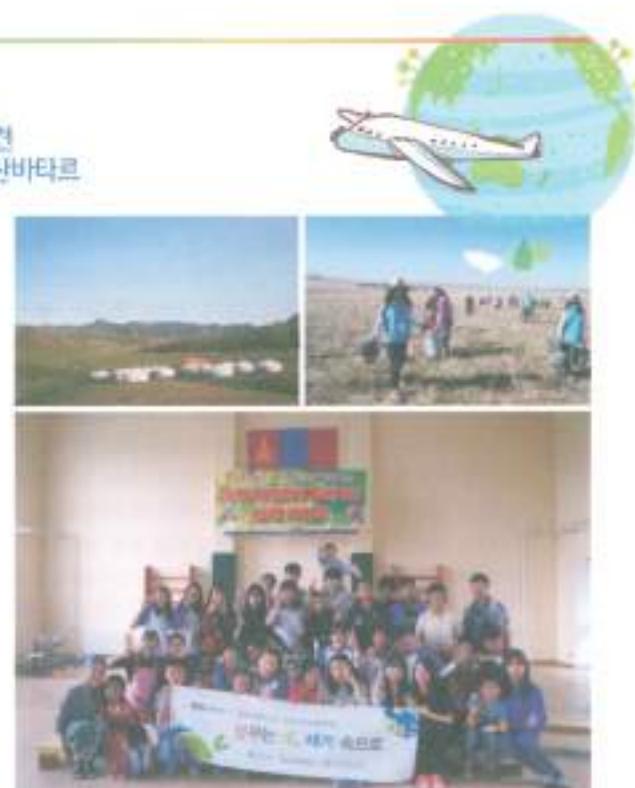
### 시흥시청소년수련관 및 시흥시여자청소년단기쉼터 신규위탁 선정

우리 재단은 시흥시로부터 청소년수련관과 여자단기쉼터를 위탁받아 2016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은 2007년 개관한 경기도 시흥시의 유일한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써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흥시여자단기쉼터 또한 2008년 개소하여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을 제공하여 가정으로의 복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돋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인천지역 청소년뿐만 아니라 인천교구 관할 시흥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몽골 파견  
8월6일(목) ~ 8월15일(토) (8박 10일) / 몽골 울란바타르

우리 재단에서 파견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이 8월 6일(목)부터 8월 15일(토)까지 8박 10일 동안 몽골 울란바타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재단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함께하는 「2015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에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지난 4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청소년 18명과 지도자와 의료진 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에르면에 위치한 「아늘마을」과 살레시모수너회에서 운영하는 「고마룬더 학교」에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하여 꿈과 사람을 나눌 예정입니다. 봉사단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ybml.or.kr>) 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ywa.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활동참가자 소감문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3학년 이정은

제에게 이번 몽골 해외자원봉사는 후회 없는 보람찬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봉사활동들보다 훨씬 준비기간이 길었고, 신경을 써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교육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끊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몽골의 아이들이 생명을 잘 따라주었고 즐겁게 활동에 참여해 주어서 우리 봉사단원들도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만났던 몽골친구들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인연이었고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노력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저희 봉사 단원들은 등굣사막화의 심각성과 영향, 진행 상태까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중에는 원래는 나무가 무성했던 곳이 이제는 풍성한 나무가 남아있고 남아있는 나무들마저도 뿌리가 흙 밖으로 나와 어떻게든 물을 빙고자 매쓰는 모습에 가슴이 뜻을 떴습니다. 그 덕분에 관수활동과 암모장의 흙을 갈아엎는 활동을 할 때에 힘들어도 인간힘을 쓰며 화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몽골의 사막화방지 노력봉사를 며칠밖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 봉사단원 이후에도 관리해주시는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8박10일간 같이 노력해주신 선생님들과 봉사단원들 덕분에 걱정 없이 아쉬울 없이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 활동참가자 소감문

양정천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23세)

어느덧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지 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무 한 것도 없이 지나 가버린 것 같아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조금씩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 또한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양정천입니다. 사실 계가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열심히 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살이 되던 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빙자리를 채우기 위해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기난을 해결하기 위해 평안도에서 살고 있던 이모는 집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여러 지역을 떠돌며 행상을 하시는 어머니를 뒤쫓아 다니면서도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동안 친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으로 어리기만 한 저는 외로움과 슬픔, 친을 수 없는 배고픔과 힘들었던 기억들이 아속해서 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힘들게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기난 때문에 어머니는 중국의 친척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저만 홀로 남겨둔 채, 때난 후 돌아오지 않았던 유년시절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를 재촉하고, 현재의 삶을 소통하게 생각하며 지난 수 있었던 것은 중국으로 떠나기 전 “무슨 일이든지 노력 없이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임부릇처럼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땀 흘려 노력하는 삶을 살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북한과 한국은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저에게 한국은 새로운 또 하나의 시판이었고 살아간다는 것은 모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생김새는 똑같지만 구사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교육방식이 다른 것은 저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지만 언제까지나 웅크려들고 용기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무슨 일이든지 항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내가 모르는 것은 배워야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의 재회로 새로운 삶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저는 계부의 폭언과 폭력이 극에 달해 저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여 계부와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저는 포기를 하였고 또한 그로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노고를 생각하며, 그대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와 삶의 후 지원하기로 결심하고 휴학을 하고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점차 자립하기는 했는데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었고 저는 아는 본 소개도 청소년지원관에서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었고, 이것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일을 못해서 월세를 못낼 수도 있었으나 월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제가 적금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월세지원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 제가 모르는 것 까지 도움을 주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제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대학교 복학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모르는 부분은 있으면 또 도움을 받을 것이고 많은 도움을 주세요!

성실한 자세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일단 자신의 많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해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합니다. 아직은 많이 서툴지만 그래도 마음 속에 끓는 열정과 인내만금은 남보다 투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저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고 계발하여 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눔과 배려의 멋진 사람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또 그 조언으로 저는 성공적인 청착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01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터넷 카페캠프 진행

8월 1일(토)부터 12일(수)까지 11박12일 동안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카페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모(가족)상담, 체험(수련) 활동, 대안활동, 부모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캠프를 통하여 통합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03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자'동아리 아웃리치 활동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자'동아리상담자원봉사' 동아리는 9월 19일(토) 계양구청소년동아리대축제와 연계하여 아웃 리치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또자동아리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뱃지와 목걸이 만들기, 간편 심리검사와 더불어 학교폭력 및 1388청소년전화 충보 캠페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 05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 청소년상담지도자 교육

10월 23일(금) 연수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및 청소년유관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청소년상담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정용진 소장이 '희복적 정의의 실천-희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주제로 아론과 다양한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07 중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검정고시 합격자, 졸업식 개최

8월 28일(금) 중구청소년지원센터 교육실에서 2015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15명을 대상으로 졸업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졸업식은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합격장과 졸업장, 상장과 축하선물을 수여함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성공경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 02 인천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립성장캠프 운영

9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1박2일 동안 꿈드림 대상 청소년 16명과 지도자 10명이 충남 아산에 있는 와암 민속마을에서 '자립성장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캠프는 꿈드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익힌 자립기술을 직접 실습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04 계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문화체험동아리 '~하자' 고궁체험

계양구 학교 밖 청소년 문화체험동아리 '~하자'에서는 지난 10월 16일(금), 고궁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아리 소속 청소년들은 직접 한복을 입고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다니며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06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학생 서포터즈 'PM' 워크숍 진행

10월 31일(토)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실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PM(Pace Maker)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선토 현장 실무자들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08 부천시청소년일사쉼터 '별사당' 청소년쉼터주간 기념 포럼 개최

10월 20일(화) 부천시민학습원에서 유관기관 종사자 및 시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청소년쉼터주간 기념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부천의 거리청소년을 말한다'를 주제로 부천지역 거리청소년의 위기사항을 알리고, 거리청소년의 안전한 삶을 위한 과제들을 청소년쉼터가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09 인천광역시청소년일사쉼터 '꿈꾸는별' 물왕리 해수욕장, 해변거리상담 실시

인천시청소년일사쉼터는 부천시청소년일사쉼터 및 중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물왕리 해수욕장에서 7월 25일(토)부터 8월 3일(월)까지 10일 동안 해변거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변거리상담에서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피서 및 거리위험 대처 교육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 11 인천광역시청소년증장기쉼터 '별마루' 추석맞이, 행정프로그램 진행

증장기쉼터 별마루에서는 추석을 맞이해서 보호청소년들과 함께 송편 등 명절음식을 함께 만들었으며 전통 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13 인천광역시청소년자활작업장 '기페 立' 18기 바리스타 청소년 자활훈련 실시

인천광역시청소년자활작업장에서는 7월 1일부터 약 한달 간 18기 바리스타 자활 훈련과정을 실시하여 소정의 테스트를 통과한 청소년에 한하여 정식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 15 연수구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마을축제, 꿈틀장터 개최

자연 9월 19일(토)에 이어 10월 31일(토) 솔안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만드는 마을축제 '꿈틀장터'가 청소년 및 지역주민 3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꿈틀장터는 연수구청소년수련원,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천시청 소년 일사쉼터와 공동운영하며, 바자회 및 다양한 체험부스,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10 인천광역시청소년단기쉼터 '바다의별' 여성가족부 차관 방문

9월 10일(목),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이 쉼터를 방문하여 2001년 개소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우리쉼터의 발자취 및 운영 성과를 살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보호청소년들이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가족같은 분위기 안에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고 쉼터의 발전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 12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비라기' 자연으로 떠나는 힐링캠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도 포천, 파주 일대에서 힐링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 자립지원관 보호청소년들과 힐링지원사업 대상자들에게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체험(자전거, 낚시, 탁상시계 만들기)을 통하여 심리, 정서적 발달 향상을 위한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 14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 여름신앙학교 'Bible Talk' 진행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에서는 인천교구 소속 본당 청소년을 대상으로 7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신앙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초등부 5차, 중고등부 2차로 진행된 이번 캠프를 통해 성경이 청소년들에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친숙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여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폐개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16 인천광역시청소년진로지원센터 내 꿈 갑(JOB)으로! 진행

인천광역시청소년진로지원센터에서는 상정중학교, 논현중학교 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11월 20~21일, 12월 4~5일 1박 2일 동안 자신의 진로방향 설정 동기유발을 위해 쉽고 재미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로를 탐색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 학교 안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의 소중한 희망!



### 학교 밖 청소년, 28만 명으로 추산

'학교 밖 청소년' 이란 9세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 학교에 정기출석하거나 취학 유예, 제적·퇴학처분이나 자퇴,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학교 밖에 있는 아동을 통틀어 자칭합니다.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약 28만 명으로 추정되어, 매년 6~7만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지만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대안 없이 세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를 떠났다 할지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즐겁고 당당하게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지난 5월부터 시행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이러한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행령이 지난 5월 29일부터 발효되는 것입니다. 본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제1조), 실태 조사(제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체계(제12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여성가족부는 '제1조(실태조사)'에 따라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금년(2015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원' 혹은 '설치' 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5년 전국 202개소의 '꿈드림' (Dream)이라 불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개점 및 운영되며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게 됩니다. 인천지역에서도 9개 곳의 '꿈드림'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연수구, 중구 등 4개소의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AKE  
YOUR  
DREAM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착적 걸음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청소년은 안전한 공간에서 생존하고 성장하여, 발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지원체계의 부족(18.6%)에 이어 낮은 자존감(12.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낮은 자존감의 원인은 주위사람들의 편견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세상과 어른들이 보내는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우리의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더 이롭답게 가꿔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보내주신



### 소중한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수 입	지 출	
1월~6월	265,443,717	청소년보호·복지 및 육성 사업비 181,312,094 / 운영비 8,790,718
7월	43,059,075	청소년보호·복지 및 육성 사업비 81,143,484 / 운영비 1,517,722
8월	42,215,485	청소년보호·복지 및 육성 사업비 20,089,730 / 운영비 3,152,576
9월	44,814,340	청소년보호·복지 및 육성 사업비 21,909,944 / 운영비 2,908,036
10월	41,925,450	청소년보호·복지 및 육성 사업비 63,875,180 / 운영비 1,037,424
11월	52,815,875	청소년보호·복지 및 육성 사업비 19,440,170 / 운영비 1,228,200
계	490,974,022	406,185,278

감사합니다  
thank you~

\* 후원화원님의 소중한 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아동·청소년 복지 및 육성사업, 구호 및 장학사업, 해외자선사업 등에 사용하여, 성실하고 투명하게 집행·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신서류 공시시스템 공시(<http://inpointo.home.go.kr>), 공인회계사·세무사 세무확인, 주무관청 감사·지도점검 등)



# 후원 참여방법

## 후원신청, 어렵지 않아요!

01 홈페이지 ([www.yism.or.kr](http://www.yism.or.kr)) "후원하기" 메뉴를 통해 직접 신청



02 전화신청(☎ 032-766-1318)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화주시면  
후원관련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후원 참여방법

### 정기후원(CMS자동이체)

후원회원님의 은행계좌에서 후원금이 매월 자동이체 되는 방법(정기후원일 지정 가능)

\* 자동이체일자에 잔액이 부족하면 재출금이 시도(3회)되며, 6개월 이상 재출금이 실패되면 종결후원자로 간주됩니다.

\* 2015년 10월부터 금융결제원의 자료요청으로 CMS정기이체 신청 시 본인 서명이 있는 후원신청서 또는 후원신청에 대한 흡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제출해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후원

후원회원님이 직접 재단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시는 방법

- ①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후원신청 ► ② 재단 후원금 계좌로 이체 ► ③ 입금 후 확인전화  
※ 입금내역 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 현물후원

식료품, 전자제품, 가구, 학용품, 의류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 모두 가능하며 기부금영수증은 물품의 시가로 발행됩니다.

후원계좌번호 예금주 :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신한은행 100-024-226501 우리은행 1005-001-494596  
국민은행 651001-01-292719 농협 147-01-214064

##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의 후원회원이 되시면..

01 재단의 신부님들이 후원회원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02 부활대축일과 성탄대축일에 이사장 주교님의 메시지가 담긴 축하카드를 보내드립니다.

03 보내주신 후원금의 사용내역은 연2회(상·하반기) 발송되는 소식지를 통해 알려드리며, 재단 홈페이지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내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마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것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계획입니다.  
(8월24일 ~ 9월 16일)



# 2015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 알려주실 거죠? 후원회원님의 소중한 정보 최신 업데이트!

기부금 영수증은 회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회원님의 정보를 확인해주시고, 변경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해주세요!  
(내정보 확인 및 수정 방법 : ☎ 032-766-1318)

## 기부금 영수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5

### Q1.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받고 싶습니다.

- A1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는 후원회원님께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국세청 양식)을 발급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대상 : 2015년에 후원내역(현금, 현물)이 있는 후원자
  - 발급기준 :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기부된 내역
  - 발급시기 : 2016년 1월 10일 전후
  - 발급 및 수령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http://www.yesone.go.kr))를 통한 확인 및 발급 가능  
- 우편발송(순차적으로 발송되므로, 연초 우편물 발송량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Q2.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A2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신청 시 등록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능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Q3. 재단에 기부한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 A3 재단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 공제(3,000만원 초과분은 25%)
  - 법인(기업)후원회원의 경우 소득의 10% 손비산정

### Q4.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4 네.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는 아래 대상자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5년 총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Q5. 연말정산을 위해 기관 서류가 필요한데, 받을 수 있나요?

- A5 네. 기부금영수증 제출 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가 필요한 경우 전화주시면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발송해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재단 사무처로 (평일 9시~18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032-766-1318)

